

일 지역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김 종 선¹⁾ · 박 경 순²⁾ · 김 태 용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로 표명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Kim, 2008)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2008)에 의하면 2001년도 15,234건에서 2007년 38,491건으로 총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비율이 11.1%로 증가되었으며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multiculture)란 용어가 통용되어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사회 등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를 넘어 국제적으로 다문화 사회라는 인구 구성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명 결혼이민이라고 하여 농어촌 국제결혼은 보편화 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단일민족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00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국가간 이주를 원활하게 했고, 특히 2003년부터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농촌총각과 제 3세계 국가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많은 다문화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Moon, 2008). 과거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내세우던 우리사회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도전과 함께 공존의 필요성이 중요

시되는 시점으로 다문화사회는 한 사회에 여러개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로 특정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어 다른 문화를 열등화하거나 가치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문화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Alexander, 2001; Breugelmans & Vijver, 2004)이지만, 여러 다문화가족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여전히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사회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과의 공존, 공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도를 향상시키는 더 큰 역할을 한다(Park & Song, 2007).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 지역주민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을 좀 더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성 증진을 위한 간호학적 중재 방안에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주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주요어 : 다문화 가족, 인식도

- 1) 문경대학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jskim@mkc.ac.kr)
- 2) 문경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3) 문경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투고일: 2009년 5월 14일 수정일: 2009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6일

도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족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일 지역주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정도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정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지정도,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 관심정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주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경북 소재의 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시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동의서를 서명 받고, 설문지에는 자료 연구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과 익명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33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96.3%로 이중 자료가 불완전한 12부를 제외하고 총 325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국정홍보처와 월드리서치(2007)가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위해 개발한 도구를 Monroe와 Pearson(2006)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3개의 영역에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 0.86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775이었다. 각 문항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정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본 인식, 다문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적응 관심 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각 영역 3개 이상의 명목척도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정도, 인지정도, 사회·경제적 적응 관심정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3.4%, 여자 56.6%이며, 연령은 만 19~29세 34.5%, 만 30~39세 25.2%, 만 40~49세 22.2%, 만 50~59세 17.2%로 성별과 연령은 거의 비슷하게 구분되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40.5%, 기혼 52.3%, 이혼 및 별거 2.5%이었으며, 종교는 불교 32%, 기독교 20.3%, 가톨릭 9.2%, 기타 및 무교 38.4%이며, 최종학력은 무학 3.7%, 초졸 3.1%, 중졸 5.2%, 고졸 44.6%, 대졸 41.5%로 거의 고졸이상의 학력수준이 많았으며, 직업은 전문직 21.5%, 상업 및 서비스 16%, 공무원 6.2%, 농업 4.9%, 기타 38.5%이며,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 37.2%, 101~200만원 이하 36.9%, 201~300만원 17.2%, 301~400만원 5.5%이며, 거주지역은 점촌 69.2%, 문경읍 5.8%, 산북 4.95, 가은읍 0.95, 기타 19.1%이며, 자녀수는 없다 47.1%, 1~2명 40.9%, 3~4명 11.1%, 5명 이상은 0.95이고, 외국에 체류경험은 없다 81.2%, 있다 18.7%이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정도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정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지정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 관심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정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정도는 <Table 2>와 같다.

‘우리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10.8%, ‘약간 그렇지 않다’ 28.9%, ‘그렇다’ 31.7%, ‘조금 그렇다’ 19.4%, ‘매우 그렇다’ 8.9%로 ‘그렇다’가 가장 많았다.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15.8%, ‘약간 그렇지 않다’ 20.3%, ‘그렇다’ 31.1%, ‘조금 그렇다’ 23.7%, ‘매우 그렇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5)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ercentile(%)
Gender	Male	130	43.4
	Female	182	56.6
Age(years)	19~29	112	34.5
	30~39	82	25.2
	40~49	72	22.2
	50~59	56	17.2
	More than 60	3	9
	Married state	Single	132
Married state	Married	170	52.3
	Divorce/Separation	8	2.5
	Others	5	1.5
Religion	Christianity	66	20.3
	Catholic	30	9.2
	Buddhism	104	32.0
	Others	16	4.9
	None	109	33.5
Final scholarship	None	12	3.7
	Elementary	10	3.1
	Secondary	17	5.2
	High	145	44.6
	University	135	41.5
	More than graduate	6	1.8
Occupation	Professional	70	21.5
	Public	20	6.2
	Commerce/Service	52	16.0
	Agriculture	16	4.9
	Others	125	38.5
	None	42	12.9
	Income(million)	Below 100	121
101~200		120	36.9
201~300		56	17.2
301~400		18	5.5
More than 401		10	3.1
Residential district	Gumchon	225	69.2
	Munhyung town	19	5.8
	Sanbook	16	4.9
	Gayeun	3	0.9
	Others	62	19.1
Children member	None	153	47.1
	1~2	133	40.9
	3~4	36	11.1
	More than 5	3	0.9
Stay experience	None	264	81.2
	Done	61	18.7

8.9%로 ‘그렇다’가 가장 많았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한다’는 ‘전혀 그렇지않다’ 17.5%, ‘약간 그렇지않다’ 38.5%, ‘그렇다’ 22.2%, ‘조금 그렇다’ 17.5%, ‘매우 그렇다’가 3.4%로 ‘약간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았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지정도

<Table 2> Degree of understanding on multi-cultural society (N=32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ercentile(%)
Single race recognition	Not at all	35	10.8
	Not a little	94	28.9
	So	103	31.7
	So a little	63	19.4
	So very	29	8.9
Persistence of Single Race characteristics	Not at all	50	15.4
	Not a little	66	20.3
	So	101	31.1
Generosity about Multi-Culture	So a little	77	23.7
	So very	29	8.9
	Not at all	57	17.5
Generosity about Multi-Culture	Not a little	125	38.5
	So	72	22.2
	So a little	57	17.5
	So very	11	3.4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지정도는 <Table 3>과 같다.

‘평소 다문화가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12.6%,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1.2%, ‘호의적인 편이다’ 17.2%, ‘조금 호의적이다’ 61.8%, ‘매우 호의적이다’ 6.5%로 ‘조금 호의적이다’가 가장 많았다. ‘나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와의 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8.9%,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1.5%, ‘호의적인 편이다’ 15.4%, ‘조금 호의적이다’ 65.8%, ‘매우 호의적이다’ 7.7%로 ‘조금 호의적이다’가 가장 많았다. ‘나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전혀

<Table 3> Degree of recognition on multi-cultural families (N=32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ercentile(%)
Attitude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Not at all	41	12.6
	Not a little	4	1.2
	So	56	17.2
	So a little	201	61.8
Friends relationships with multi-cultural families	So very	21	6.5
	Not at all	29	8.9
	Not a little	5	1.5
	So	50	15.4
Children's marriage with multi-cultural families	So a little	214	65.8
	So very	25	7.7
	Not at all	38	11.7
	Not a little	159	48.9
Culture esteem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So	122	37.5
	So a little	1	0.3
	So very	5	1.5
	Not at all	5	1.5
Culture esteem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Not a little	23	7.1
	So	183	56.3
	So a little	44	13.5
	So very	70	21.5
	Not at all	5	1.5

호의적이지 않다' 11.7%,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48.9%, '호의적인 편이다' 37.5%, '조금 호의적이다' 0.3%, '매우 호의적이다' 1.5%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가 가장 많았다.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것만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5%, '약간 그렇지 않다' 7.1%, '그렇다' 56.3%, '조금 그렇다' 13.5%, '매우 그렇다' 21.5%로 '그렇다'가 가장 많았다.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 관심정도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 관심정도는 <Table 4>와 같다.

다문화 가족이 이웃에 거주할 경우, 사회적응을 위한 도움 및 지지제공 여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0.6%, '약간 그렇지 않다' 5.2%, '그렇다' 55.1%, '조금 그렇다' 13.8%, '매우 그렇다' 24.3%로 '그렇다'가 가장 많았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해 더 많은 정책 지원과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1.5%, '약간 그렇지 않다' 9.8%, '그렇다' 49.8%, '조금 그렇다' 16.6%, '매우 그렇다' 20.9%로 '그렇다'가 가장 많았다.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1.2%, '별로 호의적이다' 0.6%, '호의적인 편이다' 12.3%, '조금 호의적이다' 74.5%, '매우 호의적이다'가 11.4%로 '조금 호의적이다'가 가장 많았다.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5.1%, '약간 그렇지 않다' 37.2%, '그렇다' 12.6%, '조금 그렇다' 11.7%, '매우 그렇다' 2.2%로 '약간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았다.

<Table 4> Degree of interest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 economic adaptiveness (N=32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ercentile(%)
Assistance for social support	Not at all	2	0.6
	Not a little	17	5.2
	So	179	55.1
	So a little	45	13.8
	So very	79	24.3
Politic support & budget apportionment	Not at all	5	1.5
	Not a little	32	9.8
	So	162	49.8
	So a little	54	16.6
	So very	68	20.9
Immigrant women's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Not at all	4	1.2
	Not a little	2	0.6
	So	40	12.3
	So a little	242	74.5
	So very	37	11.4
Job decrease along increase of immigrant women's multi-cultural families	Not at all	114	35.1
	Not a little	121	37.2
	So	41	12.6
	So a little	38	11.7
	So very	7	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해, 인지 및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해, 인지 및 사회 경제적 적응 관심 정도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정도는 자녀의 수(F=2.004, p=.02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지정도는 최종학력(F=2.699,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Table 5>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recognition, and interests in social · economic adaptiv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Understanding			Recognition			Social · economic adaptiveness		
		M±SD	F	P	M±SD	F	P	M±SD	F	P
Gender	Male	8.45±2.67	1.264	.233	12.70±2.92	1.452	.111	11.89±2.89	1.400	.152
	Female	8.07±2.55			12.88±2.54			11.97±2.03		
Age(years)	19~29	8.62±2.60	.782	.680	12.95±2.80	1.155	.301	12.17±2.21	.927	.530
	30~39	7.36±2.48			12.91±2.71			11.81±2.59		
	40~49	8.13±2.65			12.91±2.55			12.02±2.22		
	50~59	8.73±2.58			12.25±2.65			11.76±2.19		
	More than 60	9.33±0.57			12.66±2.51			7.66±6.65		
Married state	Single	8.69±2.52	1.040	.412	12.85±2.85	.770	.728	12.08±2.53	1.389	.156
	Married	7.89±2.67			12.92±2.51			11.93±2.13		
	Divorce/separation	7.25±2.31			12.25±3.80			11.75±2.12		
	Others	7.75±1.70			11.50±1.91			11.75±1.50		
Religion	Christianity	8.34±2.98	1.123	.339	12.77±3.10	.669	.833	12.15±2.35	2.024	.016*
	Catholic	7.87±2.35			12.56±2.90			11.96±2.07		
	Buddhism	8.54±2.48			13.20±2.58			12.05±2.38		
	Others	7.96±2.46			12.71±2.48			10.45±4.10		
	None	8.18±3.70			11.45±2.29			11.88±2.21		

<Table 5>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recognition, and interests in social · economic adaptiv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32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Understanding			Recognition			Social · economic adaptiveness		
		M±SD	F	P	M±SD	F	P	M±SD	F	P
Final scholarship	None	8.00±0.00	.903	.551	9.50±0.70	2.699	.000***	12.00±1.41	1.406	.149
	Elementary	10.90±2.07			10.10±2.68			10.60±4.47		
	Secondary	9.76±2.43			11.88±3.01			11.41±2.26		
	High	8.17±2.71			12.80±2.79			11.76±2.63		
	University	7.92±2.45			13.08±2.28			12.20±1.88		
	More than graduate	7.66±2.73			15.83±1.47			13.33±1.75		
Occupation	Professional	8.75±2.31	.996	.455	12.81±2.54	.550	.925	12.15±1.90	1.235	.248
	Public	8.40±2.18			13.45±2.87			12.15±1.92		
	Commerce/service	7.71±2.48			12.90±2.61			11.76±2.28		
	Agriculture	9.43±2.96			11.56±2.27			11.56±2.22		
	Others	8.10±2.74			12.48±3.10			11.75±4.03		
	None	7.95±2.78			13.06±2.59			11.97±2.05		
Income(million)	Below 100	8.38±2.72	1.472	.126	13.16±2.71	1.553	.076	12.25±2.22	1.694	.056
	101~200	8.28±2.24			12.65±2.19			11.96±1.89		
	201~300	8.23±2.63			12.85±2.41			11.82±2.60		
	301~400	8.22±3.26			13.94±2.97			12.16±2.25		
	More than 401	7.00±2.87			13.00±3.80			12.00±2.82		
Residential district	Gumchon	8.20±2.62	1.128	.334	12.93±2.57	1.319	.178	11.96±2.42	.755	.717
	Munhyung town	8.36±1.73			12.05±2.69			10.68±3.33		
	Sanbook	9.81±2.50			11.81±2.88			12.43±2.44		
	Gayeun	8.00±1.00			14.33±1.52			12.00±1.73		
	Others	7.86±2.80			12.81±3.05			12.14±1.86		
Children member	None	8.57±2.62	2.004	.020*	12.84±2.76	1.479	.101	11.98±2.54	1.074	.380
	1~2	7.77±2.48			13.04±2.58			11.95±2.08		
	3~4	8.75±2.99			12.47±2.24			11.61±2.00		
	More than 5	7.00±2.64			11.33±5.68			13.33±2.30		
Stay experience	None	8.32±2.62	.868	.587	12.73±2.52	1.409	.130	11.85±2.16	1.417	.144
	Done	7.48±2.54			13.27±3.03			12.18±2.76		

*p<.05 **p<.01 ***p<.001

<Table 6> Correlations among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recognition, and interests in social · economic adaptiveness (N=325)

Variable	Understanding		Recognition		Social · economic adaptiveness	
	r	p	r	p	r	p
Understanding						
Recognition	.020	.722	.020	.722	.006	.917
Social · economic adaptiveness	.006	.917	.429	.000***	.429	.000***

***p<.001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적응 관심정도는 종교(F=2.024, p=.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응 관심정도(r=.429, p=.000)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인지 및 사회 · 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정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다문화가족의 인식도(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정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지정도, 다문화가족의 사회 · 경제적 적응 관심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정도와 사회 · 경제적 적

논 의

최근 제 3세계 국가와의 결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가족의 발생은 사회 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여러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진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지정도와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를 구축하고 현실성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경우 성별은 남자 43.4%, 여자 56.6%, 연령은 만 19~29세 34.5%, 만 30~39세 25.2%, 만 40~49세 22.2%, 만 50~59세 17.2%로 성별과 연령은 거의 비슷하게 구분되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2.3%, 종교는 무교 38.4%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고졸 44.6%, 대졸 41.5%로 거의 고졸이상의 학력수준이 많았다. 직업은 전문직이 21.5%이었으나, 월평균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37.2%, 101~200만원 이하가 36.2%로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거주지역은 점촌이 69.2%로 많았으며, 자녀수는 없다가 47.1%, 1~2명이 40.9%로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 체류경험 유무는 없다가 81.2%로 다문화 사회를 간접적으로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도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정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지정도, 다문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정도로 구분지어 조사하였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정도는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매우 그렇다’ 8.9%, ‘조금 그렇다’ 19.4%, ‘그렇다’ 31.7%로 52%가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일민족에 대한 특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그렇다’ 8.9%, ‘조금 그렇다’ 23.7%, ‘그렇다’ 31.1%로 63.7%가 단일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문화에 대한 관대함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7.5% ‘약간 그렇지 않다’ 38.5%로 56%가 비교적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다소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Kim (2009)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온 백의민족의 후손임을 자랑해온 한국인들에게 피부색과 언어, 종교, 풍습이 상이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하였고, Lee(2007)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의미가 동일하다고 본다. 하지만, Park(2008) 등은 다양한 현장에서 교사들은 다문화를 인정하고 관대함을 보인다고 언급한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수용하는 교육 이념적 사고가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최근 Berry (2001)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단일 민족을 자랑으로 내세워서도 안 되며 나아가 서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며 다문화적 통합 전략을 선택하고자 하여도 기존의 문화

사람들이 이주문화 즉, 다문화에 대한 상호적 수용이 없다면 진정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바른 민족성 고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지정도의 조사결과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도는 ‘조금 호의적이다’ 61.8%, 다문화 가족과의 자녀교류에 대해 ‘조금 호의적이다’ 65.8%,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56.3%인 것으로 다문화 존중감과 다문화가족과 자녀의 교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정도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와의 결혼허락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11.7%,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48.9%로 60.6%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정도에서 단일민족성 고수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teel과 Valentine(1995)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가정 밖의 환경에서 어떤 민족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런 양육방식에서의 다문화 가족의 갈등은 추후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차세대 다문화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반면에 Grippen과 Brew (2007)은 이런 자녀의 교류가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적절한 절충과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이해는 차세대 다문화사회의 적절한 통합에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하여 사회 구성원들간의 문화적 차이의 조절능력과 융통성을 부여하며 구성원 각자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미래사회에서 더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Vivero와 Jenkins(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측면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되어 진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 관심정도는 사회 적응을 위한 도움 및 지지제공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 55.1%, 정책지원과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그렇다’ 49.8%,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이다’ 74.5%,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다’ 37.2%로 나타났다. Lee(2008)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대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응에 대한 지지 제공과 국내 거주를 위해 이주여성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현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존 및 공생에 대한 측면으로 이주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해 지역주민의 관심정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사회·경제적 뒷받침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정도는 자녀

수($F=2.004, p=.02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지정도는 최종학력($F=2.699, p=.0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정도는 종교($F=2.024, p=.016$)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정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지정도, 다문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정도의 상관관계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지정도와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정도($r=.429, P=.000$)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재된 인지정도가 긍정적일수록 다문화사회의 사회·경제적 적응 관심도가 상승되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일익을 담당하여 사회적응력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주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족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사회에서 기본 인식도와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대한 관심정도가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과거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내세우던 기존의 양상과는 달리 새롭게 전개되고 있어 다문화사회 공생 및 공존의 필요성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다문화 가족을 좀 더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법적 조정과 사회적 인식 향상을 바탕으로 한 선결과제 해결과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실적인 프로그램 및 제도적 정책적 보완의 개발과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 지역 주민에만 제한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도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향후 타 지역과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본 인식정도가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정도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관련요인 분석과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른 다문화가족 인식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 변인을 조사하고 예측요인을 유도함으

로써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해결되어야 하는 선결과제와 정책과제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 정책방안을 제언한다.

-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관계증진을 위한 간호학적 측면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lexander, J. (2001). Theorizing the 'odes of incorporation, assimilation, hyphenation, and multi-culturalism as varieties of civil participation. *Sociological Theory, 19*(3), 237-249.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57*(3), 615-631.
- Breugelmans, S., & Vijver, F. (2004). Antecedents and components of majority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alism in the netherland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3*(3), 400-422.
- Crippen, C., & Brew, L. (2007). Intercultural parenting and the transcultural family; A literature review.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 and families, 15*(2), 107-115.
- Kim, E. S. (2008). Research on women who move to Korea for international marriages from Northeast Asia and on Southeast Asia in Korea -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 new area of researches on Southeast Asia in Korea - *Correl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and Local Governance, 25-38.*
- Kim, H. S. (2008). Establishing the multi-cultural policy networks in Korea. *Journal of North East Asian Studies, 46*(1), 127-151.
- Kim, I. (2009). A state and orient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on the primary school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1), 23-42.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Statistics on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s and divorced couples.* Republic of Korea.
- Lee, Y. J. (2007). Study on protective factors that affect on psycho-social adjustment towards children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a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oks Woman, 12*(2), 83-105.
- Lee, Y. J. (2008). Adjustment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in multi-culture families: A study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Korea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79-101.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Policy of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depending on family life circle.*
- Moon, Y. L. (2008).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eenagers in families who moved to Korea - Rainbowyouth Center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ternational Symposium Books of Policy Establishment for Youth from Families Moving to Kore. 5-34.*
- Munroe, A., & Pearson, C. (2006). The 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MASQUE): A new instrument

-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5), 819-834.
- Park, K. J., & Song, E. K. (2007). Social ·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ithin agricultural areas. *The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91-108.
- Park, Y. K., Kyung H. S., & Jo, Y. D. (2008). Variety of cultures among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s schools and their attitudes toward students. *Studies on Citizen Education*, 40(3), 1-28.
- Steel, M., & Valentine, G. (1995). New colors: Mixed race Families still find a mixed reception. *Teaching Tolerance*, 4(1), 44-49.
- Vivero, M., & Jenkins G. (1999). Existential hazards of the challenges of measuring racial ethnic ident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11), 1735-1738.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ertain Areas

Kim, Jong-Sun¹⁾ · Park, Kyung-Soon²⁾ · Kim, Tae-Yong³⁾

- 1)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Munkyeong College
 2)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unkyeong College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unkyeong College

Purpose & Method: Based on a large amount of research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local residents in an era of an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ies. As well, the data was stratified based on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and economic adaptabil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ult:** The available literature supports the view that an understand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encourages an emphasis on maintaining ethnicity and respect for diverse cultures. Parental approval for friendships with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ends to be encouraged, although there is still resistance to marital ties with such families. The literature indicates that immigrant women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of their adopted locale and adapt to the new societal structur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interests in social and economic adaptiveness was apparent. **Conclusion:**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complemen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alistic programs and institutional policies are required to underst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establish a multi-cultural society. Ongoing research will be valuable in resolving outstanding questions and clarifying political alternative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Recogni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ong-Sun
 Department of Nursing, Munkyeong College
 6, Byulam-Ri, Hokye-myun, Mungyeong-Shi, Gyeong buk, Korea
 Tel: 82-54-559-1268 Fax: 82-54-552-5392 E-mail: jskim@mkc.ac.kr